한국불교의 방향 · '영성' 등 트렌드 반영

2014년 상반기 불교계 어떤 학술대회 열리나

갑오년의 봄을 알리는 춘계 학술세미나들이 대거 열린다. 기운찬 청마의 해, 학회들의 세미나 준비로 분주하다. 불교계 학회들은 어떤 문제의식으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을까.

3월 중순 인도철학회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보조사상연구원 등이 학술대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20여개의 크고 작은 학술대회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현각)이 베이징대, 도쿄대, 타이완국립대와 5월 9일 공동으로 동국대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현대 불교 흐름의 다양한 양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봉축세미나를 겸해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각 대학 학자 2명과 서구권 학자 2명 등 총 10명이 발표자로 불교의 세계 흐름 속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화를 위해 논문 작성과 발표를 영어로 통일하고 발표된 내용은 단행본 형태로 출간돼 세계 학계에서 두루 읽힐 것으로 기대된다.

사찰 연계 학술대회 다수

불교계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불교학회(학회장 김용표)는 국내 사찰들과 함께 고승들을 조명하는 학술세미나를 연다.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를 말하다'를 주제로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평창 월정사와 고창 선운사의 후원을 받아 마련된다. 한국학과 근대 불교의 큰 스승인 석전 스님과 한암 스님을 입체적으로 살핀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3월 22일 법련사 문화강당에서 순천 송광사와 함께 '간화선, 보조지눌과 혜심의 활동과 역할'을 주제로 제106차 월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월례 학술대회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보조 지눌의 교유 고승', 조명제 신라대 교수가 '혜심의 공안선 이해와 선문염송집'을 각각 발표한다.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원장 종석)은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주 금산사와 함께 '금산사와 한국유식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트렌드 '영성', '신앙' '여성' 등 조명

최근 학계 연구의 화두로 떠오른 '영성' '신앙' 등을 조명하는 자리도 대거 마련된다.

인도철학회(학회장 이지수)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와 함께 3월 28일 금강대에서 '불성은 영성인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한국정신과학학회도 3월 21일 '양자의식과 영성'을 주제로 마포 학지사 2층 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학회장 조수동)는 5월 중으로 '탈핵과 불교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며 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6월 30일 합천 해인사에서 '불교사상과 현대정보'를 주제로 하기교수불자대회를 연다.

소장불교학자들을 발굴해 온 불교학연구회(학회장 조은수)는 4월 4일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봄논문발표회를 여는데 이어 5월 24일 서울대에서 '불교의 과문전통'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6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하는 '탄신 96주년 기념 황수영 박사의 미술사연구 업적 학술대회'는 작고한 원로 불교미술사학자인 황수영 박사의 생애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자리다. 문명대 소장을 비롯해 최응천 동국대 교수, 박도화 문화재청 감정위원 등 황수영 박사와 인연이 있는 학자들이 그의 사상과 업적을 발표한다. 이날 자리에서는 내원사 소장 비로자나불과 전주 송광사에 대한 미술사학 학술대회도 함께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4년 상반기 불교계 학술대회 일정

학 회	주제 및 대회명	날짜	장 소
인도철학회	'불성은 영성인가?'	3월 28일	금강대
보조사상연구원	간화선, 보조지눌과 혜심의 활동과 역할	3월 22일	서울 법련사
불교학연구회	봄논문발표회	4월 4일	서울대 인문대학
한국불교학회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를 말하다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금산사와 한국유식사상'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 성과발표회	4월 말	동국대
신라사학회	제134차 학술발표회	4월 중	서강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탈핵과 불교사상'	5월 중	동명대
동국대 불교학술원	동아시아 4개국 국제학술대회	5월 9일	동국대
불교학연구회	춘계학술대회	5월 24일	서울대 인문대학
한국미술사연구소	황수영 박사의 미술사연구 업적	6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교수불자연합회	'불교사상과 현대정보'	6월 30일	합천 해인사
선학원 선리연구원	선리학술상 수상발표회	6월 경	장소 미정

'봉은사 목조여래불' 등 7건 보물 지정

봉은사 목조여래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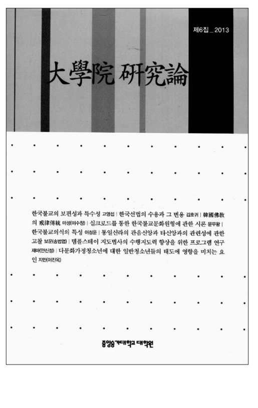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창녕 관룡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

지난 2월 지정예고한데 이은 것으로 7건 중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은 조선 후기 1651년 조각승 승일(勝一)이 중심이 되어 제작한 상이다. 1765년의 개금발원문(改金發願文)을 통해 1689년 무렵 화재가 발생하여 본존 석가여래상을 새로 조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삼불좌상 모두 조각적으로 우수하고, 발원문을 갖추고 있어 17세기 중후반의 불교조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지정된 '창녕 관룡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 등 벽화 2건은 문화재청이 시행한 사찰건축물벽화 조사사업을 거쳐 국가문화재로 지정됐으며 '서울 봉은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5건은 불교문화재 일제조사사업을 통해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노덕현 기자

중앙승가대 〈대학원 연구논집〉 제5집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보각)은 최근 〈대학원연구논집〉 제5집을 펴냈다. 〈대학원연구논집〉 제5집에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한국불교의 보편성과 특수성–물리적 비빔과 화학적 달임'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의 '한국선법의 수용과 그 변용' △마성 스님의 '한국불교의 계율전통–근현대한국불교의 계법전승을 중심으로'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문화원형에 관한 시론' △이성운 동국대 불교학부 강사의 '한국불교의식의 특성–상황논리의 역동과 한계' △재마 스님의 '통일신라의 관음신앙과 타신앙과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지민 스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일반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논문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당신은 바르게 먹고 사십니까?"

2014 사찰음식 정기학술심포지엄
한국불교문화사업단 3월 8일~9일 불교박람회서

사찰에서 진행되는 발우공양의 한 장면. 심포지움에서는 음식섭취가 정신수행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식사는 영성 발현의 한 과정

이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는 1부 기조발제 '식맹의 시대, 식사의 영성' 발표에서 식사에도 정신 수행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 안에 내재되 있는 영성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교적 원리를 보여준다"며 "인간은 단순한 물질만으로 되어 있지 않으며,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각 종교들이 음식 속에 우주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가 들어있음을 일찍이 파악하고 공양법이나 성체성사와 같은 의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여러 음식과 관련된 의례들은 식사가 인간의 영성을 구현할 수 있는 성스러운 일이란 것을 잘 보여준다"며 "이제 음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불교는 음식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

이어 1부 주제발표 중 불교파트를 맡은 김재성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교수는 '공양과 깨달음' 발표를 통해 불교의 음식에 대한 입장을 초기 · 부파 · 대승 · 한국불교에서 살펴보았다.

김 교수는 "초기경전에서 불교는 음식을 중생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며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며 "불교 음식관에서는 음식의 종류보다 음식에 담긴 의미가 중요했다"며 "이러한 정신은 발우공양에서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음식을 먹는 것은 보시자와 준비하는자의 공덕을 살피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며 받는 수행의 일환"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사찰음식을 현대인을 위한 건강식이자 수행식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선재 스님은 '사찰음식의 건강증진 기여효과에 대한 고찰'에서 사찰음식의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선재 스님은 "수행하는 스님들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며 "시대에 발맞춘 발전과 함께 계승을 위한 조리사 교육, 재료 개발 등 여러 가지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선방을 비롯한 여러 수행처에서 사찰음식 문화가 발전되는 한편 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국민식단 제시 등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스님은 "전국 주요사찰 보유 농지를 활용한 식자재 생산 시그템이 마련돼야 하며, 사찰음식을 통해 포교할 수 있는 대중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찰음식 건강 증진에 우수한 효과

이심열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는 '사찰음식 건강증진 효과 고찰' 발표에서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38기 46명을 대상으로 4주간 진행된 사찰음식의 건강증진 효과 연구를 공개했다.

이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사찰음식을 4주간 섭취한 이후 체중 및 체지방률, 혈압이 감소했으며, 간기능이 대폭 개선됐다.

사찰음식 섭취 전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청 이상자로 판명된 7명 중 4명이 4주 후 정상으로 검사됐으며 콜레스테롤 이상자 12명 중 8명이 호전됐다. 식습관이 불량한 7명 또한 식습관 개선의 효과를 보았다.이 교수는 "연구를 세분화 해 성별, 연령대별로 다양한 식단으로 비교한다면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겠지만,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고지혈증과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다"며 "장기간 식사섭취를 한다면 건강 증진 뿐만 아니라 식습관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양자의식과 영성, 그리고 명상

한국정신과학학회(회장 조효남)는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마포 학지사 2층 대강당에서 '양자의식과 영성'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과학과 명상과 신비주의' △강길전 충남의대 명예교수의 '양자의학' △조효남 한양대 명예교수의 '양자의식과 양자도약적 의식의 변화와 영성' △김선숙 마음의과학연구소 소장의 '양자물리학과 쉬운 명상법'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불교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를 맡고 있는 조효남 교수는 인간의식의 정신과 우주의 과학원리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올바른 신해행증에 의해 영성발달에 대해 논한다. (02)554-5701

노덕현 기자

종교와젠더硏 '불교발생 배경과 여성'

종교와젠더연구소(소장 옥복연)는 3월 21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발생의 시대적 배경과 여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류경희 서울대 종교학과 강사가 2700여 년 전 인도의 모습과 남녀차별, 계급사회 속에서 불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 인도 여신문화가 불교에 준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함께 심각한 여성차별적 사회인 인도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성평등을 주장하게 됐는지 이야기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한편 류경희 강사는 서울대와 서강대 등에서 종교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인도종교 · 신화와 관련한 〈인도신화의 계보〉 〈인도여성, 신화와 현실〉 〈나를 찾아 인도로 떠나자〉 등의 저서가 있다.

노덕현 기자

웰빙 힐링 빌리빙

깨달은 108배

표정 + 자세 + 동작 + 호흡법 + 동작알아차림 +
염불대입 + 깨달은 절

700만배 청견스님 깨달은 절수행 완전공개

완벽하게 절하면!
만병통치유

깨달은 절수행 배우시고
부처님가피 100%
건강소원성취 100%

♣ 스트레스 0 불면증 100% 피로즉석 우울증
냉병 화병 상기병은 같은병

절교육 절수행 점검 상담 ☎010.3487.0035

www.법왕정사.net

• 주 소 : 대구 수성구 매호동 1344-23 다비치 5층
• 오시는길 : 지하철 2호선 신매역 1번출구 1분
수성 I.C 5분, 경산 I.C 10분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